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연구책임

이지선 연구위원

연구진

김시백 선임연구위원

J THINK



이슈브리핑 요약

대규모 신산업 투자에 따른 새만금의 미래산업 거점화

-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새만금 권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AI 데이터센터, 재생 에너지, 수소, 로봇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16조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직·간접 7만 1천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기대됨

지역 내 고용기회 및 정주환경 결합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필요성

- 이러한 대규모 신산업 투자는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으나, 단순히 첨단산업 집적만으로는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대만 신주과학단지 사례: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환경 결합 시 청년인구 유입 확대

- 첨단산업 집적과 산·학·연 연계, 직주근접 주거환경이 결합된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이 함께 구축되며 청년인구 유입과 젊은 인구구조 유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사례: 산업 집적만으로는 청년 유입 및 정주 제한

- 반면 데이터센터 중심 산업 구조, 제한적 고용 창출, 높은 주거비 등이 결합된 경우, 첨단산업 집적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정주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고용·정주 여건 불일치와 청년 정착의 구조적 한계

- 통계 분석 결과, 청년 유입은 첨단산업 입지보다 청년 고용과 정주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북은 타 시도 대비 정주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나, 생활 인프라가 거점도시에서 집중되어 있고 새만금 일대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생활 여건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구조임

생활 기반 구축과 광역 연계를 통한 정주 전략 필요

- 이에 향후 정책은 청년의 유입부터 체류,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하여, 새만금 내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거점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청년 정착을 위한 단계적 정주 전략 추진

- 청년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입 초기의 체류 기반 마련, 일상적 생활권 연계, 산업 성장과 연동한 정주 인프라 확충이 단계적으로 맞물려야 함
- 이를 위해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주거단지 조성, ②생활서비스 연계 광역 정주 교통망 구축, ③ 산업 투자 연계 단계별 정주·인력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세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I. 새만금 신산업 투자 추진 배경과 쟁점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투자 배경 및 주요 내용

- 최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새만금 권역에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6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직간접 7만 1천 명 정도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투자 내용은 AI, 수소 에너지, 로봇릭스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단순 생산시설 구축을 넘어 데이터·에너지·첨단 제조가 결합된 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I 데이터센터) 전체 투자 중 약 5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GPU 약 5만 장 규모의 초대형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 및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저장 기능을 수행
 - (태양광 발전 및 전력 인프라)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센터 및 수전해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산업 구조를 형성
 - (수소 에너지) 약 1조 원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트램·버스·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수소 기반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현
 - (AI 수소 시티) 약 4천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과 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교통·물류·안전 등 도시 전반에 피지컬 AI를 적용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현
 -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약 4천억 원을 투자하여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

〈현대차그룹 전북 새만금 투자 계획 주요 내용〉



출처 : 김채빈. (2026.3.2). 「“새만금·美 거점서 양산”...현대차그룹,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본격화. 이투데이.

국내외 최근 대규모 신산업 지역 투자 사례

- 국내외 최근 대규모 신산업 지역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해 특정 지역에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전략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국내 사례)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에 총 약 3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함. 2024년 약 9.4조 원 시설투자비에 이어, 2030년 12월 말까지 신규시설투자비 약 21.6조원 집행 결정을 하였으며, 본 투자는 AI·데이터센터·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확대에 대응한 생산 역량 확충 차원의 클러스터형 투자임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11공구 부지에 약 7조원 규모의 차세대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임. 이는 바이오·첨단의학 분야의 생산 거점 강화를 목표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신규 부지를 활용하여 생산·연구 인프라 확충 계획 중임
 - 아울러 SK텔레콤-AWS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약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100MW급 이상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임. 이는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를 도입하는 사례로, 산업 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국외 사례) 미국 오하이오주 Licking County New Albany에 인텔(Intel)이 약 280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농지 중심 지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사례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공급망 재편이 병행되고 있음
 - 또한, 인도 부동산·인프라 기업인 RMZ 그룹은 Andhra Pradesh주 Visakhapatnam 지역 등 인도 주요 지역에 약 35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AI 인프라·복합 상업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AI factory, GPU 기반 인프라, 글로벌 기업지원센터(GCC) 연계 오피스 개발 등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 중심 투자 사례로 신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 산업 재구조화로 평가되고 있음

〈국내외 대규모 신산업 지역 투자 사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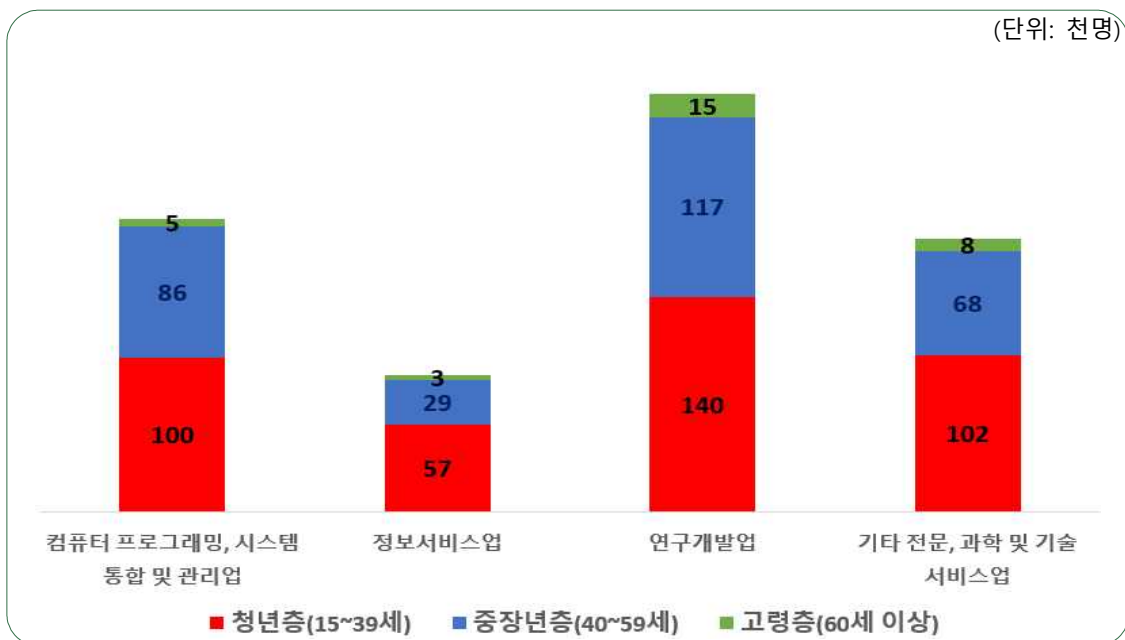
투자 사례	핵심 산업	투자액 및 기간	투자 주요 내용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약 31조 원 (2024~203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신규 생산 팹 건설 및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차세대 치료제 생산 시설	바이오·첨단 의약 생산	약 7조 원 (2025~2034)	송도 11공구 부지에 차세대 치료제 생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
SK-AWS 울산 미포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약 7조원 (2025~2029)	미포국가산업단지 부지에 103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조성
인텔(Intel) 미국 오하이오 Ohio One 프로젝트	첨단 반도체 제조	약 43조 원 (2022~2032, 단계적 추진)	오하이오 New Albany 일대 첨단 반도체 공장 2기(Mod1·Mod2) 건설,
RMZ 그룹 인도 AI·데이터 인프라 투자	데이터센터, AI 팩토리·인프라	약 53조 원 (2026~2031)	인도 주요 지역에 1.5G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및 GPU 기반 AI 인프라 구축 추진. AI 팩토리(AI Factory), GPUaaS, 디지털 인프라 및 복합 상업개발 연계 추진

출처 : 양해나. (2025.12.01.). 「삼성바이오, 제3캠퍼스 구축...7조 투입 최대 생산능력 확보」, 매일경제.
 정두용. (2025.08.29.). 「'7조원 투자' SK-AWS 'AI 데이터센터' 첫 삽... 최창원 의장 "디지털 경제 근간 세울 것"」, 조선비즈.
 정일주. (2026.2.25.).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신규투자...21조 6000억 규모」, 디일렉.
 Intel Newsroom. (2025.2.28.). 「Press Kit: Intel Invests in Ohio」, 「Ohio One Construction Timeline Update」, Intel.
 The Hindu Bureau. (2026.4.13.). 「RMZ to invest \$35 billion in data centres, AI infrastructure commercial realty」, The Hindu.

대규모 신산업 투자와 청년 인구 유입 가능성

- 이러한 대규모 신산업 투자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속·고임금 직종의 고용 확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2025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관련 산업의 전체 취업자는 730천 명이며, 이 중 15~39세 청년층 취업자는 399천 명으로 약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91천 명 중 청년층 100천 명), 정보서비스업(89천 명 중 청년층 57천 명), 연구개발업(272천 명 중 청년층 140천 명) 등 ICT·R&D 중심 산업에서 청년층 비중이 과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이 청년층의 주요 고용 흡수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됨

〈연령대별 정보통신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 현황〉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25년 상반기 자료) 활용 저자 작성

주)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의 연령 구분 기준(15~29세, 30~39세)을 반영하여 15~39세를 청년층으로 구분

-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 신산업 투자로 AI·수소·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기술이 집적될 경우, 전복의 청년 인구 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잠재력이 존재함

II. 대규모 신산업 투자와 청년인구 유입 해외 사례

1. 대만 신주과학단지(Hsinchu Science Park) 사례

국가 전략 및 민간 참여 결합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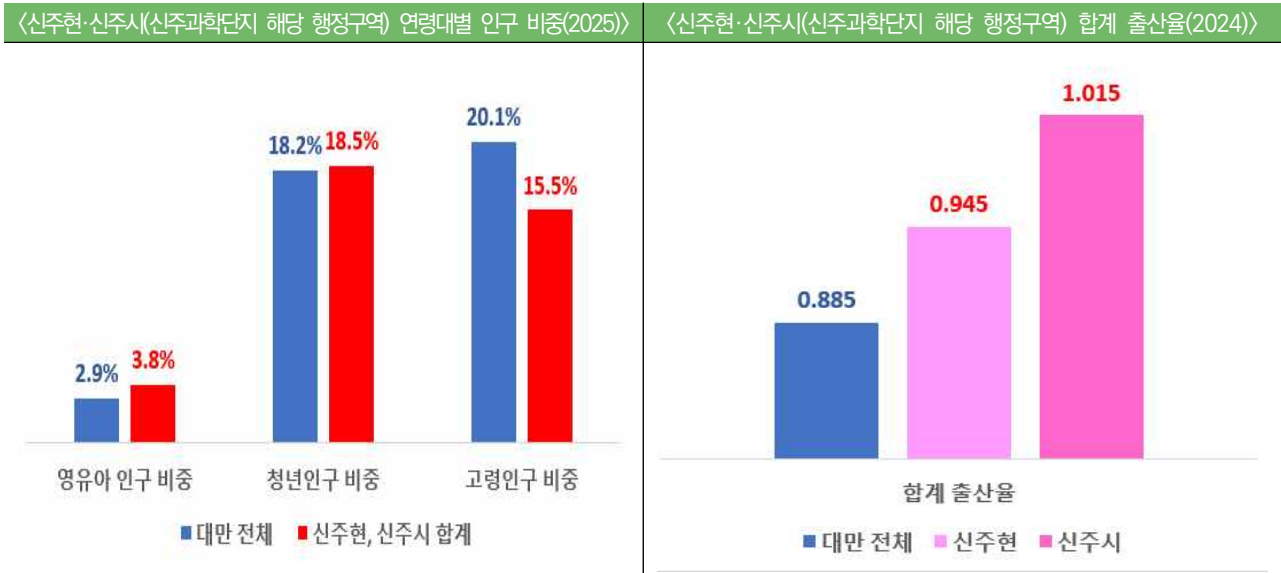
- 대만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반도체·정보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거점으로 신주를 선정하여 대만 최초 과학산업단지로 조성하였음
 -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1970년대 노동집약형 산업 구조에서 첨단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 12월 최초 개장
- 설립 초기에는 국가 주도 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민간 첨단 제조업체(TSMC, UMC 등 수백억 달러 규모 팹 투자)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함
- 이후 수요 증가에 맞추어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신주를 시작으로 타이중·타이난 등으로 확대되어 1,000헥타르 이상 규모의 과학단지 네트워크로 성장함

R&D 기반 첨단산업과 청년 고용 확대

- 신주과학단지는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광전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 기능과 양산 기능이 공간적으로 결합된 집적형 산업단지로 운영 중임
- TSMC, UMC, MediaTek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하여 58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26년 3월 기준), 약 17.9만 명 규모의 종사자가 근무('25년 기준)하는 대만 첨단 제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음
- 고용 구조의 경우 고숙련 엔지니어 및 연구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 약 42%가 석·박사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26년 3월 기준), 평균 연령은 30대 중심의 비교적 젊은 노동구조를 보임

연령구조 개선 및 인구 활력 증대

- 2025년 기준, 신주과학단지 해당 행정구역인 신주현·신주시의 청년인구(20~34세) 비중(18.5%)은 대만 전체 평균(18.2%)보다 0.3%p 높음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또한 대만 전체(20.1%)보다 신주현·신주시(15.5%)이 4.6%p 낮게 나타나, 대만 전체 평균 대비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특성을 보임
- 더불어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도 대만 전체(0.885명)보다 신주현(0.945명)과 신주시(1.015명)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기준 영유아(0~4세) 인구 비중 또한 대만 전체 평균(2.9%)보다 신주현·신주시(3.8%)가 0.9%p 높음



출처 : 대만 내정부 호정사(Dept. of Household Registration, MOI), Population 및 Total Fertility Rate 자료 활용 저자 작성

주1) 연령 구간은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집단 구분을 기준으로 활용

주2)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함

산업·주거·교육이 결합된 정주 환경 형성

- 이러한 인구 구조 특성은 신주과학단지의 산업·공간적 환경 및 제도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주시와 신주현(특히 죽베이시)은 신주과학단지 성장과 함께 주거 개발이 확대되었으며, 과학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직장 and 주거의 공간적 인접성이 형성됨
- 또한 단지 인근에는 국립칭화대학교(NTHU), 국립양명교통대학교(NYCU), 산업기술연구원(ITRI) 등 대만을 대표하는 공학·과학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인력 교류가 활발한 산·학·연 연계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아울러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 제도, 복지 지원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청년 가구의 정주 여건 및 출산과 관련된 요소로 평가됨

2. 미국 북버지니아(Northern Virginia) 데이터센터 사례

데이터 인프라 중심 민간 투자 집적지 형성

- 미국 버지니아주 북버지니아(특히 라우던 카운티(Loudoun County))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주정부와 카운티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장비세 감면, 전력·통신 인프라 우선 공급,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라우던 카운티 일대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하였음
 - 특히 아마존은 버지니아주에 2011~2021년 사이 약 519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040년까지 추가로 약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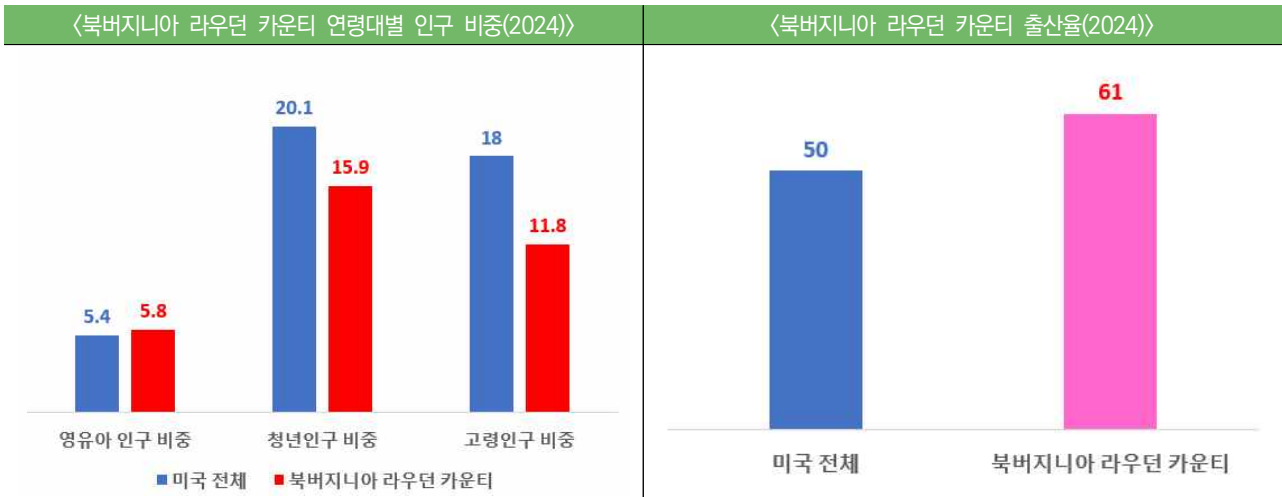
- 이와 같은 투자 확대로 북버지니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 골목(Data Center Alley)’으로 불릴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지로 성장하였으며, 라우던 카운티는 세수·고용 측면에서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대표적인 데이터 인프라 중심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데이터 인프라 산업 집적과 지역 고용 창출의 구조적 한계

- 라우던 카운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북버지니아 데이터센터는 서버·네트워크 운영, 전력·냉각 관리, 보안·유지보수 등 24시간 상시 운영 기반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처리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산업 집적지로 운영 중임
- 이러한 산업 집적을 기반으로 라우던 카운티 데이터센터 생태계는 약 1만 2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시설 구축 및 연관 산업을 포함한 규모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자동화 및 고속련 인력 중심으로 인해 지역 내 지속적인 고용 창출 규모는 제한적임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기반의 한계

- 2024년 기준, 데이터센터 밀집지역인 라우던 카운티의 청년인구(20~34세) 비중은 15.9%로 미국 전체 평균(20.1%) 보다 4.2%p 낮음
- 반면, 영유아 인구(0~4세) 비중(5.8%)은 미국 전체(5.4%)보다 0.4%p 높고,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1.8%로 미국 전체 평균(18%)보다 6.2%p 낮음
- 더불어 라우던 카운티의 최근 12개월 출산 여성 수는 여성 1,000명당 61명으로, 미국 전체 평균(50명)보다 22% 높은 수준임



출처 :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및 Fertility 자료 활용 저자 작성

주1) 연령 구간은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집단 구분을 기준으로 활용

주2) 출산율은 가임 여성(15~50세) 1,000명당 최근 12개월 내 출산한 여성 수를 의미함

지역 성장과 청년 정주 간 연계 구조의 한계

- 라우던 카운티는 데이터센터 집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로의 연결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한계는 라우던 카운티의 높은 주택·생활비와 데이터센터 입지로 인한 생활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인구와 출산율이 미국 전체 대비 높은 것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직접적 영향이 아닌 라우던 카운티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것임. 라우던 카운티는 높은 가구소득과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정주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임
- 라우던 카운티의 자가주택 중위 가격이 약 74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주택 시장 구조와 임차인의 42.4%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가구의 주택 구매와 장기 정주를 저해함
-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인한 소음, 대기 오염, 전력·수자원 과부하 등 생활 부문의 질 저하 요인이 지역 이주를 억제함

지역 신산업 투자와 청년인구 유입 간 구조적 시사점

〈지역 신산업 투자와 청년인구 유입 관련 국외 사례 요약〉

구분	〈대만 신주과학단지〉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성장 요인	- 국가 주도 첨단산업 육성 전략 - 반도체·ICT 제조업 중심 산업 집적 - R&D + 생산 기능 결합 구조 -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 세제 혜택 기반 민간 투자 유치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 집적 - 전력·통신 인프라 기반 입지 경쟁력
청년인구 유입 결과	- 청년인구 비중 18.5% (대만 전체 평균(18.2%) 대비 +0.3%p, 2025년 기준)	- 청년인구 비중 15.9%(미국 전체 평균(20.1%) 대비 -4.2%p, 2024년 기준)
청년인구 유입 효과 차이 원인	- 고속권·고임금 일자리 대규모 창출 - 직주근접 주거환경 형성 - 대학·연구기관 인력 순환 구조	- 자동화 기반 소수 인력 구조 - 높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 소음·환경 부담 등 정주 저해 요인

- 앞선 대만과 미국 사례 비교 결과, 대규모 신산업 투자라 하더라도 산업의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환경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효과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 지역 역시 단순한 첨단산업 유치만으로는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산업·고용·정주환경이 함께 고려되지 않을 경우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와 유사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새만금 현대차그룹 투자 효과를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업 유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 구조와 정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

III. 첨단산업 환경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

1. 첨단산업 환경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7개 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첨단기술산업 환경과 지역 여건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은 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인구 유입은 단순한 산업 집적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고용 여건과 정주 환경이 함께 작용할 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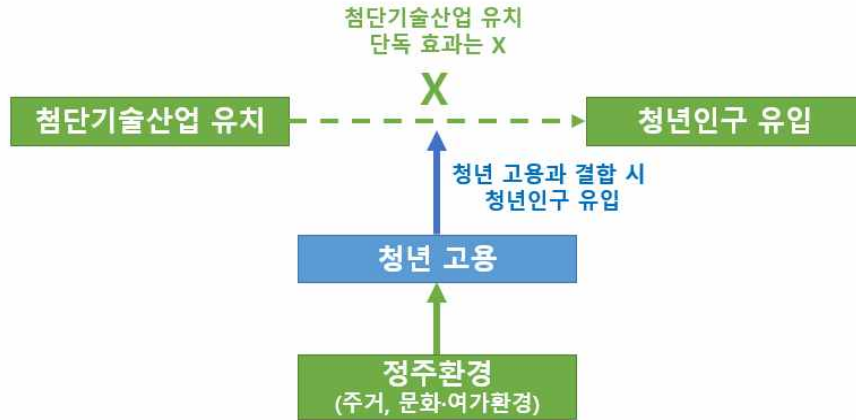
첨단기술산업과 청년 고용의 연계 효과

-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 자체는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첨단기술산업 집적만으로는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해당 지역에 첨단기술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반면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와 청년 고용률 간 상호작용 효과는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와 청년 고용률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는 0.06(α 0.05)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 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첨단기술산업 집적이 청년순이동률을 추가적으로 약 0.06%p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함
 - 한편,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는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대비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체 규모나 산업 구조에 따라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첨단기술산업이 지역에 집적되어 있더라도 청년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청년 고용 여건이 확보된 지역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청년 인구 유입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청년 정착 여건으로서의 정주환경

- 한편 주거 및 문화·여가환경과 같은 정주환경 요인은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 공급이 충분한 지역일수록 청년층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의 경우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층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여가 여건 등 삶의 질 요소도 함께 고려할 가능성을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청년인구 유입 정책이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산업 투자 중심을 넘어 주거 여건 및 생활환경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청년인구 유입의 구조적 결정 요인(통계 분석 결과 관련)〉



요인	변수명	회귀계수	p-value	청년인구 유입 영향
고용환경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	-0.07	0.43	
	청년 고용률	0.12	0.00***	○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 × 청년 고용률	0.06	0.02**	○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	-0.42	0.01**	○
주거환경	주택보급률	0.41	0.04**	○
교육환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수	-3.15	0.13	
문화·여가환경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24	0.00***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19	0.12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0.02	0.85	
	주민등록연앙인구 수	-1.02	0.11	
	지역내총생산액	0.80	0.00***	○

주1) 종속변수인 청년순이동률은 (19~39세 순이동자수 ÷ 19~39세 연앙인구) × 100으로 산출된 값으로, 해당 지역 청년 인구 대비 순유입 또는 순유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주2) 첨단산업기술산업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 $\frac{\text{해당지역 첨단기술산업 종사자수}}{\frac{\text{해당지역 전체산업 종사자수}}{\text{전국 첨단기술산업 종사자수}}}$

주3) 첨단기술산업 범위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기술업종 분류 중 '첨단기술 산업(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항공·우주선 부품 제조업 등)' 기준을 준용함

주4) * p < 0.1, ** p < 0.05, *** p < 0.01(별표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함)

출처: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첨단기술업종 입지계수 2010~2023년 자료 활용
KOSIS 국가데이터포털 2010~2023년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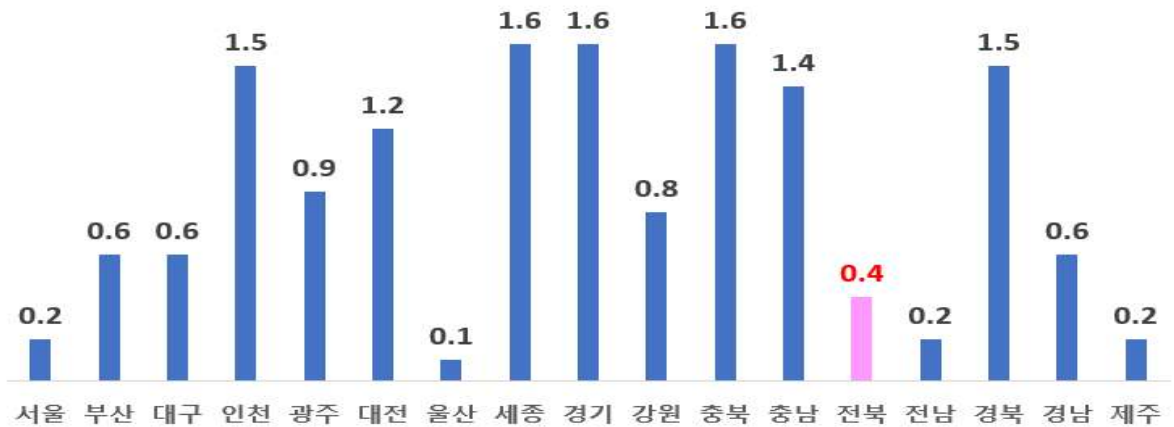
2. 전북의 청년인구 유입 여건 진단

- 앞선 분석에서 청년순이동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의 시도별 수준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첨단산업 집적 수준과 청년 고용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정주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2023년 기준 전북의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는 0.4로 전국 평균(1)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 이는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첨단 기술산업 집적도가 낮고 해당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임을 의미함
*입지계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석되며, 1과 같으면 전국 평균 수준, 1 이상은 특화, 1 미만은 특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 2025년 기준 전북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대비 7%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3위인 실정임
 - 반면 2024년 기준 전북 주택 보급률은 110%로 전국 평균(102.9%)대비 7.1%p 높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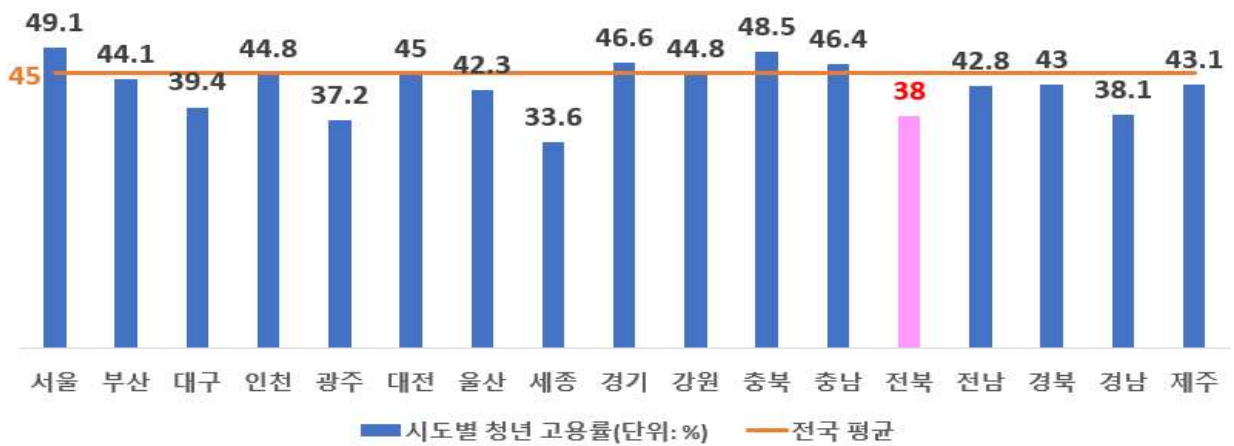
- 또한 2024년 기준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6천㎡로 전국 평균(12.8천㎡)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음
- 아울러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10.9로 전국 평균보다 4.4개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즉, 전북은 정주환경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산업 및 고용 기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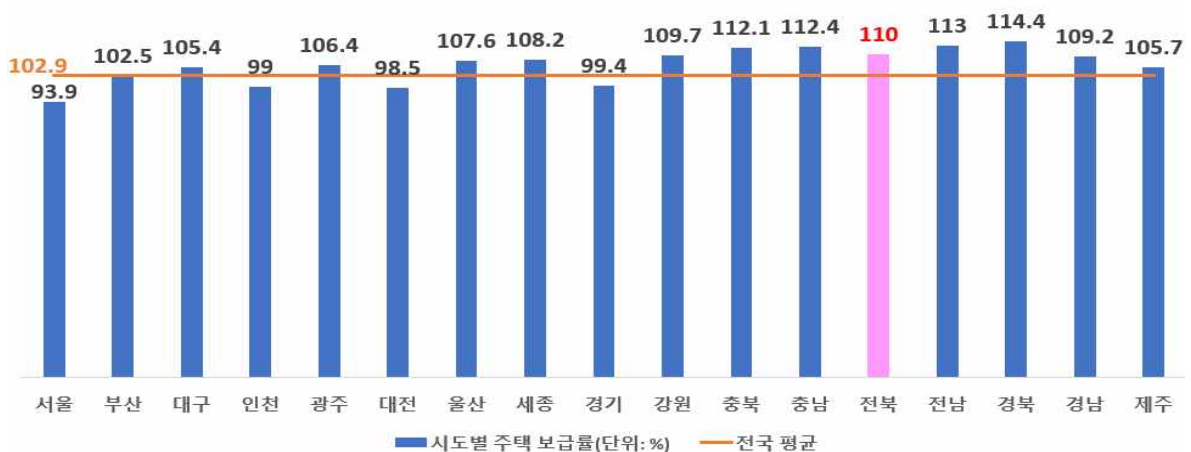
〈시도별 첨단기술산업 입지계수(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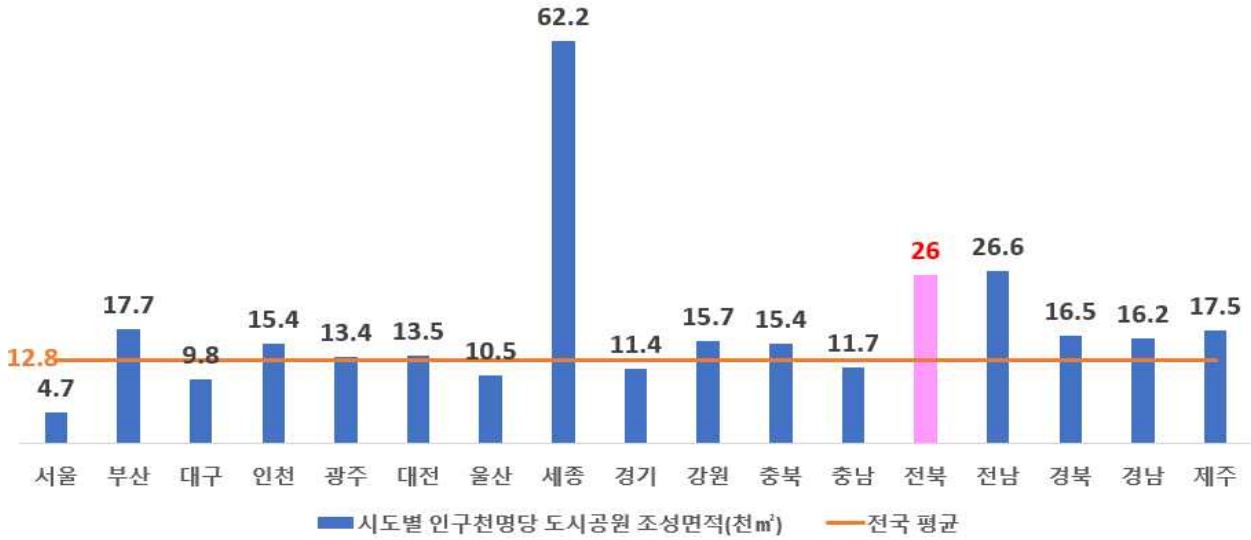
〈시도별 청년 고용률(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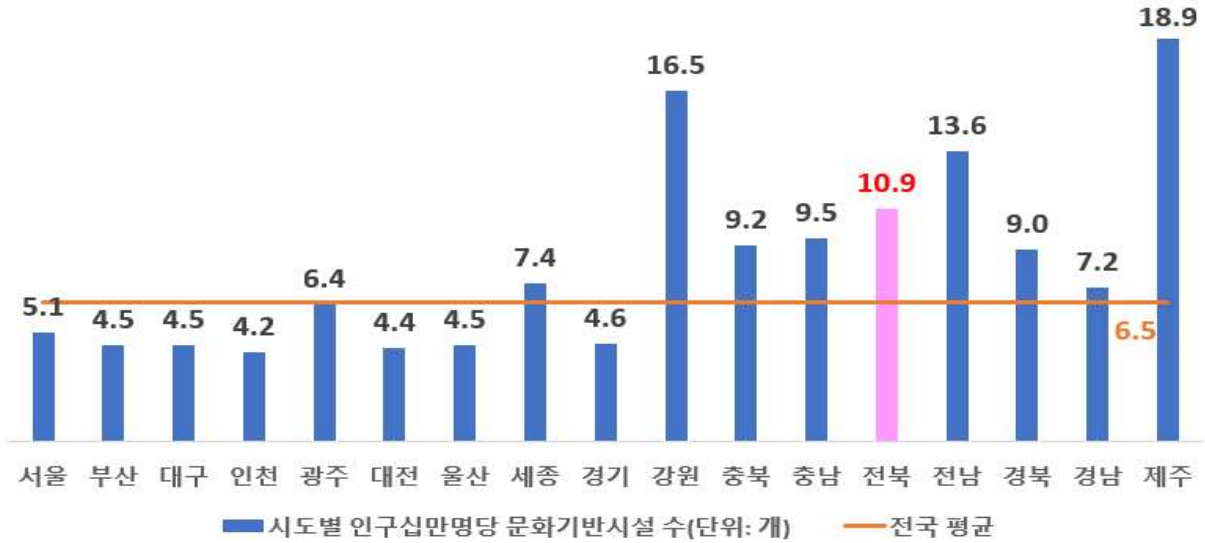
〈시도별 주택 보급률(2024)〉



〈시도별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2024)〉



〈시도별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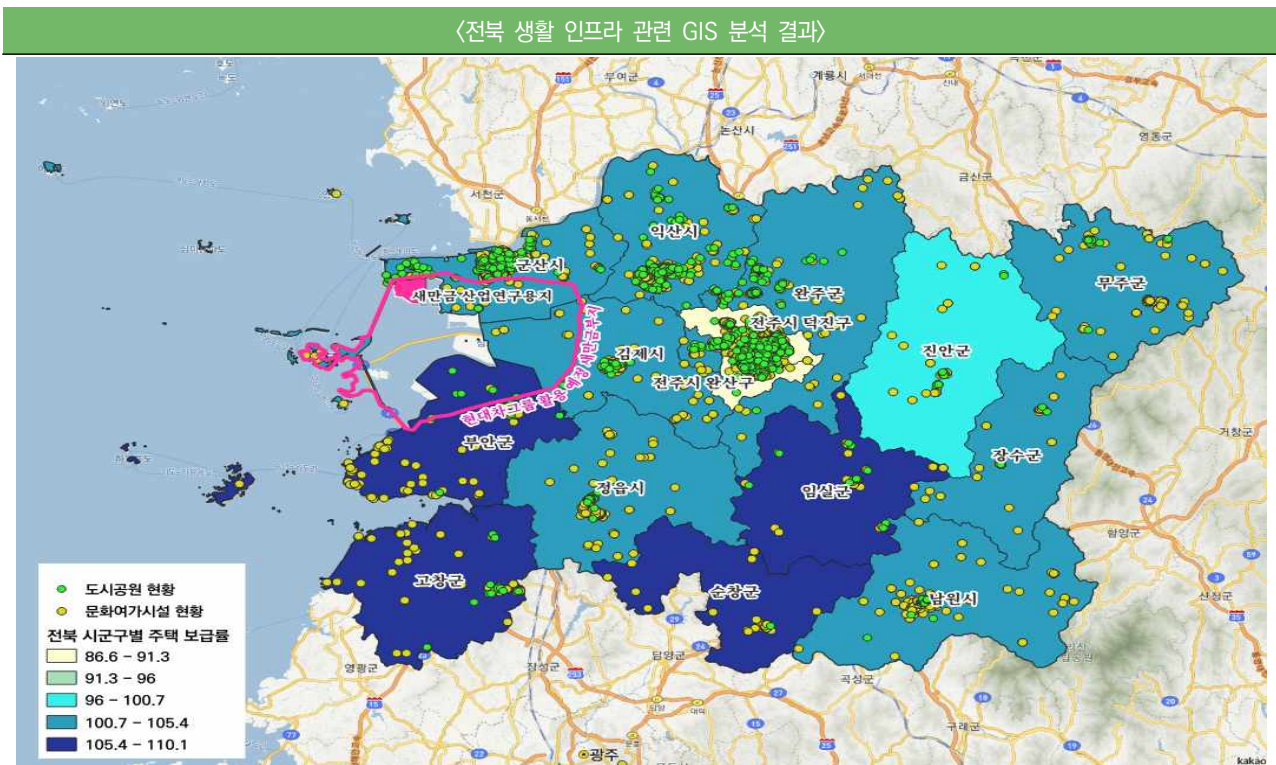


출처 : KOSIS 국가데이터포털
국가데이터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IV. 청년 체류-정착을 위한 통합 정주 설계

1. 생활 인프라 격차 진단과 생활권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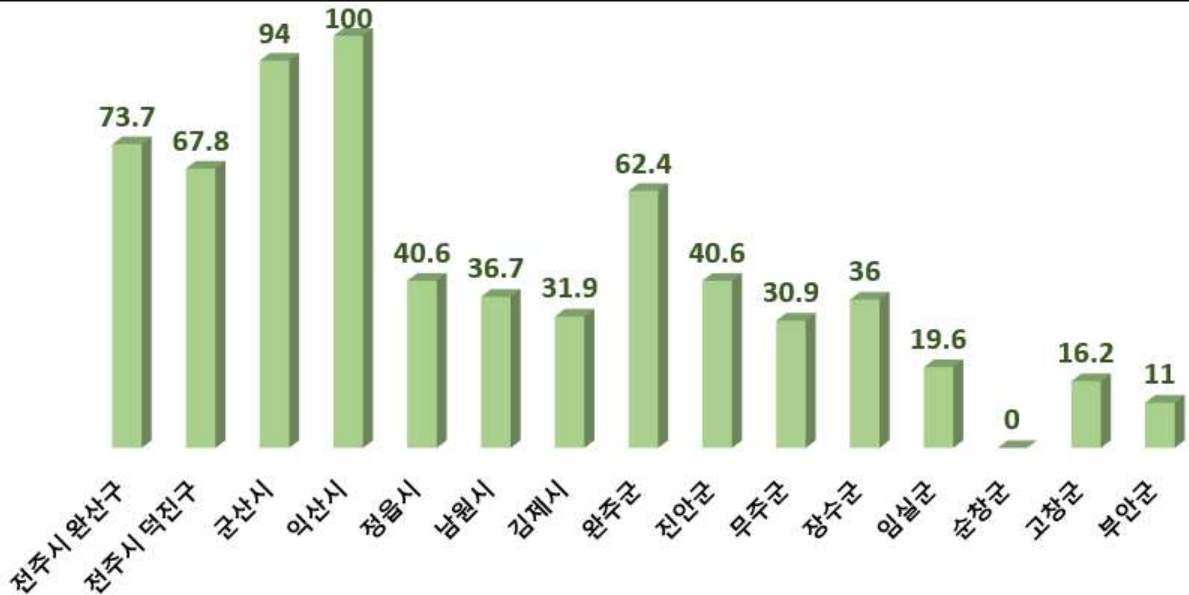
- 앞선 사례 및 통계 분석 결과, 첨단기술산업 자체는 청년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청년이 선호하는 고용 여건과 정주환경이 결합될 경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새만금 신산업 투자로 인한 전북의 정책 방향은 향후 새만금 투자 과정에서 실제 청년 고용 창출이 병행된다면 전제하에, 단순한 산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이 실제로 일하고 머물러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북은 타 시도 대비 정주환경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새만금과 같은 산업 입지에서는 청년이 이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 GIS 분석 결과에서도 전북의 도시공원, 문화여가시설 등 생활 인프라는 전주권과 군산·익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 일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새만금 산업 입지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향후 새만금 일대 산업 인프라 구축 시, 이로 인해 유입되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능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함



출처: 국가데이터처(2024) 「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포털(2026)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
 전북 김제시청(2026) 내부자료(도시공원 수 관련)
 행정안전부(2026) 「지방행정 인허가정보」 활용 저자 작성

- 더불어 앞선 첨단산업 환경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청년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도시공원, 문화여가시설, 주택보급률과 같은 정주환경 변수를 중심으로 **전북 시군구별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상대적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정주환경 종합점수는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완주군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만금 신산업 종사 청년인구의 생활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정주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북 시군구별 정주환경 점수 현황(청년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주환경 관련 변수 관련)〉



주1) 인구 1만명당 시설 수와 같은 상대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인구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값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 인프라의 실제 집적 규모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절대적 시설 규모와 GIS 분포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석하였음

주2) 종합점수의 경우 도시공원 수, 문화여가시설 수, 주택보급률 3개 지표를 표준화한 후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 (전북 15개 시군구 간 상대 비교 지표이며, 최저값을 0점, 최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음. 따라서, 특정 지역의 0점은 절대적으로 정주환경의 열악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 지역 가운데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값임)

$$\text{정주환경점수}_{raw} = \frac{Z(\text{도시공원수}) + Z(\text{문화여가시설수}) + Z(\text{주택보급률(변환값)})}{3}$$

$$\text{최종 종합점수} = \frac{\text{정주환경점수}_{raw}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times 100$$

주3) 문화여가시설의 경우 문화 업종(공연장, 숙박·관광시설,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테마파크, 전통사찰 등)과 생활 업종(골프장·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중 영업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

주4) 시군구별 주택 보급률 = (주택 수/일반가구 수) × 100

(100%에 가까울수록 균형적인 주택 공급 상태로 간주하고 100%와의 차이를 반영한 변환 지표를 적용함)

출처: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포털(2026)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
전북 김제시청(2026) 내부자료(도시공원 수 관련)
행정안전부(2026) 「지방행정 인허가정보」 활용 저자 작성

- 따라서 향후 정책은 청년의 유입부터 체류,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하여, **새만금 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기존 거점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생활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2. 청년 정착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정책 방향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청년의 유입·체류·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조성 방향을 세 가지 정책 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청년주거단지 조성

- (추진 필요성) 현재 새만금 일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향후 유입될 청년층의 초기 체류와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새만금 내부에서 정주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주거, 교육, 상업, 공공, 녹지 기능을 포함한 복합도시로 계획되어 있으며, 생활 SOC 중심의 4개 커뮤니티(정주형 주거특화지구, 라이프 플렉시블 지구, 미래형 수변생활지구, 첨단산업 중심특화지구)를 기반으로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또한 정주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신규 개발보다 청년주거 기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임
- 그러나 이러한 공간구조는 전반적인 정주인구를 포괄하는 기능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향후 첨단산업 투자에 따라 유입될 청년 1인 가구, 초기 취업자,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주거 및 생활기반은 계획상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청년층은 직주근접성, 주거비 부담, 생활편의 및 커뮤니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존 생활권 체계만으로는 초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생활 특성과 생애주기를 반영한 별도의 정주거점을 보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입지 및 조성 방향) 청년주거단지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기존 4개 생활권 체계를 전제로 하되, 기존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특정 생활권을 신규로 설정하기보다, 기존 계획상 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 복합커뮤니티, 교육 및 공원·녹지 기능이 계획된 구역을 중심으로 청년주거 기능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적절함
- 특히 입지 선정 시에는 주거유형 다양화가 가능한 주거계획 여건, 생활편의 및 커뮤니티 기능과의 접근성, 산업 및 업무 기능과의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주거단지는 기존 생활권 내에서 복합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내부 교통체계와 연계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거-생활-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청년 정주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및 기능 제안) 청년주거단지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청년층의 초기 유입부터 장기 정착까지를 지원하는 생활기반형 정주거점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주거 유형은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착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신규 유입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인재숙·코리빙(Co-living)형 주거
 - 가구·가전이 포함된 풀옵션형 단기 체류 주거로 조성하여 초기 정착 부담 완화
 - (2단계) 초기 정착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 청년임대주택
 - 전용 20~40㎡ 규모 중심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거주 기반 마련
 - (3단계) 장기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를 위한 소형 분양주택
 - 전용 40~60㎡ 규모의 청년 우선 공급을 통해 체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
- 또한 이와 함께 청년주거단지에는 청년층의 생활방식에 부합하는 **생활지원 기능**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 무인편의점, 세탁, 택배보관함 등 1인 가구 중심의 기본 생활 인프라
 - (업무·자기계발)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회의공간 등 재택근무 및 자기계발 수요 대응
 - (여가·건강) 피트니스, 소규모 스포츠시설, 휴게공간 등 건강·여가 기능 보완
 - (커뮤니티) 카페, 소셜다이닝, 입주자 교류공간 등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지원
 - (가족지원) 영유아 돌봄, 키즈카페 등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장기 정착 기반 보완
 - (정착지원) 주거·금융·취업·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상담·정착지원 창구 마련
- 이를 통해 청년주거단지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관계 형성이 결합된 **청년 정착의 출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생활서비스 연계 광역 정주 교통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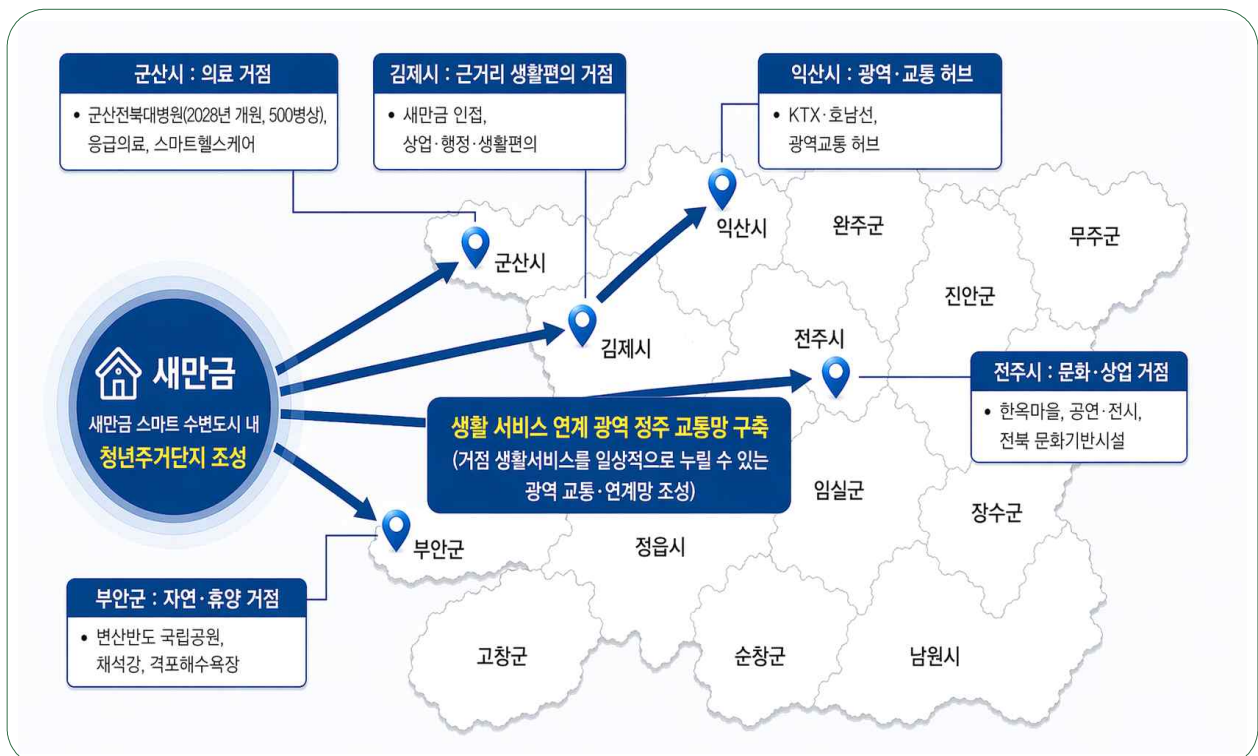
- (추진 필요성) 전북은 다양한 정주환경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과 기존 거점 도시 간 연계성 제약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원과 접근성의 괴리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이 청년의 체류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신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기존 거점 도시의 생활 서비스를 새만금과 연결**하여 청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기존 교통 인프라가 산업·물류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생활서비스 접근을 고려한 노선 구성과 운행체계를 반영**하여 ‘이동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 청년이 전북 주요 거점 도시의 생활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 정주 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 특히 각 거점 도시는 **기능별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전북 주요 거점 도시의 생활서비스 기능 및 역할(안)〉

거점 도시명	핵심 생활서비스 기능	주요 인프라
전주시	문화·상업 거점	한옥마을, 공연·전시시설, 상업시설 밀집지, 전북 문화기반시설 집중 지역
군산시	의료 거점	군산전북대병원(2028년 개원 예정, 5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 소화기, 응급의료, 스마트헬스케어 등 중증·응급 환자 특화 치료 제공 예정)
익산시	광역 교통 허브	KTX 호남선 정차역
김제시	근거리 생활편의 거점	새만금 인접 도시로서 상업·행정·생활편의 기능 수행
부안군	자연·휴양 거점	변산반도 국립공원, 채석강, 격포해수욕장 등 관광·휴양 인프라

- (세부 내용(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광역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은 **교통 인프라를 넘어, 청년의 일상 생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의 문화·여가·의료·생활편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행 노선, 시간대, 서비스 체계 등을 아래와 같이 생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기반 문화·여가 광역버스 운행 (주말·야간 집중 배차)
 - 전주~새만금 광역철도 완공 이전, 새만금~익산역 직결 셔틀버스 우선 운행
 - 새만금~군산 구간 의료 접근 정기 셔틀 도입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연계)
 - 새만금~김제 구간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수소 모빌리티 연계)
- 더불어 광역 정주 교통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 모빌리티 바우처를 도입하고 기업·지자체 매칭 및 이용 실적 기반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내 생활기반 형성 및 거점 연계 관련 정책 방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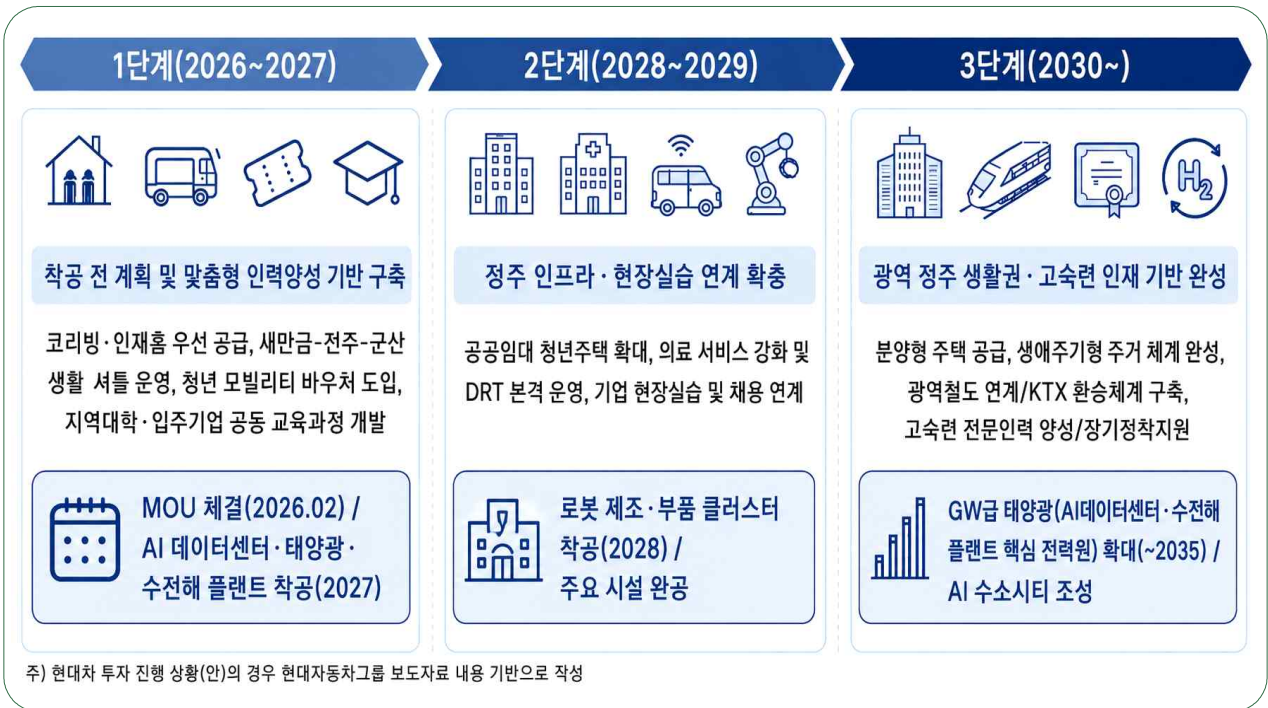


이미지 작성: Chat GPT

3) 산업 투자 연계 단계별 정주·인력양성 체계 구축

- (추진 필요성) 앞서 제시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청년주거단지 조성 및 광역 정주 교통망 설계가 산업 투자 착공 시점보다 늦게 구축될 경우, 초기 유입 청년은 정주 기반 없이 새만금에 투입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이 청년의 체류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근무 또는 외부 거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투자와 정주 인프라 간 시차를 최소화하고, 착공 초기부터 청년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청년 인력 양성·공급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만금에 유치될 AI 데이터센터, 수소, 로봇,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은 고숙련 기술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산업 수요-교육-현장실습-채용이 연계되는 전복형 인력양성 및 공급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알라바마주 GE Appliances Decatur 냉장고 제조공장의 경우, 2018년부터 Alabama FAME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커뮤니티칼리지 교육과 제조 현장 실무 경험을 병행하며 준학사 학위와 숙련기술 경험을 함께 축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추진 방향) 현대차그룹 등 앵커기업의 새만금 투자 일정에 맞추어 청년주거단지, 광역 정주 교통망, 지역 인력양성 체계를 단계별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초기에는 체류 기반과 맞춤형 교육 기반을 우선 확보하고, 중기에는 안정적 정착 기반과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주 체계와 고숙련 인재 정착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안)) 1단계(2026~2027)는 착공 전 체류 기반과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임. 투자 착공 이전 청년 인력 유입에 대비하여 코리빙·인재숙 등 단기 체류형 주거를 우선 공급하고, 청년주거 특화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만금-전주-군산 생활 셔틀 시범 운행과 청년 모빌리티 바우처 도입을 통해 초기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대학 및 입주 예정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공동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단계(2028~2029)는 산업 가동 확대에 대응하여 정주 인프라와 현장 실습 연계를 확충하는 단계임. 청년 고용 인력 증가에 맞춰 공공임대 청년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돌봄·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군산전북대병원과 연계한 의료 셔틀 정례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을 통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여 청년 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3단계(2030년 이후)는 광역 정주 생활권과 고숙련 인재 정착 기반을 완성하는 단계임. 분양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형 주거 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광역철도 연계 및 KTX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과 전북 주요 거점 도시 간 생활권 연계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한 청년 기술인력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재로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고용-정주 통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산업투자 연계 단계별 정책 방향(안)〉



이미지 작성: Chat GPT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신산업 투자 효과를 청년인구 유입과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 전략의 세 축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음. 즉, 주거 기반, 광역 생활권 연계, 산업투자 일정과 연동한 정주·인력양성 체계가 함께 결합될 때,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참고 문헌

- 임태경. (2023).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197-220.
- 현대자동차그룹. (2026.2.27.).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에 로봇·AI·수소 에너지 혁신성장거점 구축. 현대자동차그룹 보도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2023). Virginia's data centers and economic development. https://www.richmondfed.org/publications/research/econ_focus/2023/q2_feature2
- GE Appliances. (2022). 2022 economic impact report. GE Appliances, a Haier company.
- Hsinchu Science Park (n.d.). Hsinchu Science Park: Introduction and statistics. Retrieved March 2, 2026, from <https://web.sipa.gov.tw/english/>
- Hsinchu County Industrial Commercial Development &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n.d.). Hsinchu Science Park. Retrieved March 2, 2026, from <https://www.idipc-hsinchu.org.tw/En/HSP>
- Jong, W. W. (2024, April 22). [Big read] In Taiwan, birth rate soars in Hsinchu's tech zone. ThinkChina.
- LAS Real Estate. (2025, June 24). Industrial growth is attracting new residents to McCalla, Alabama. LAS Real Estate. <https://lasrealestate.com/industrial-growth-is-attracting-new-residents-to-mccalla-alabama/>
- Lim, L. (2024, February 11). 'Success breeds success': How a 1,400-hectare plot became the hub of the global chip industry—and the world economy. Fortune.
- Loudoun County Democratic Committee. (2025, September 4). The Loudoun Democratic Committee calls for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cies to make housing more affordable. <https://www.loudoundemocrats.org/blog/the-loudoun-democratic-committee-calls-for-local-state-and-national-policies-to-make-housing-more-affordable>
- Northern Virginia Technology Council. (2024). The impact of data centers on Virginia's state and local economies: 5th biennial report.
- Turner, M. (2025, October 20). Loudoun County, Virginia: Data center capital of the world: A strategy for a changing paradigm. Loudou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n.d.). Amazon Web Services expands Virginia footprint. Retrieved May 13, 2026, from <https://www.vedp.org/case-study/amazon-web-services-expands-virginia-footprint>
- Yip, W. Y. (2026, January 27). What birth rate crisis? Here's how one city in Taiwan is bucking the island's worrying trend. The Straits Times.

Vol. 346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